



광주 전자의 거리 상징 조형물 점등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13일 오후 동구대인동 전자상가 앞에서 상인 100여명과 함께 '광주 전자의 거리 상징조형물' (높이 5m·가로 5m·세로 1m) 점등식에 참석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조형물은 LED전광판을 통해 상가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 화재 참사...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현실과 비애

밀린 월급 달라면 "당장 나가라" 아파도 병원 못가고 혼자 '꽁꽁'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부끄럽게도 그들에겐 '악몽의 땅'이 되고 있다. 월급은 때이기 일수고, 몸이 아파도 병원마저 갈 수 없는 이들이 많다.

◇의료 사각=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병들거나 다쳐도 마땅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몇 배나 비싼 일반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70만~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이들은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등에게 무료로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진료(입원·수술)가 이뤄지고 있는 병원은 전남대·조선대·광주기독병원(이상 광주), 순천·강진·목포의료원(전남) 등 6곳.

악몽된 '코리안 드림'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무료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광주 12명, 전남 12명에 불과하다. 의료비 지원은 3천4천40만원에 그쳤다.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 4천여명을 포함해 2만여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이 틀동날까봐 병원찾기를 기피하고 있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체불 임금=불법 체류자들은 비록 법을 어기기는 했지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월급을 꼬박꼬박 받기란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지난 11일 참사가 발생했던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돼 있던 외국인 55명은 대부분 임금을 받지 못해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희생자 진정 난색의 경우 3년간 1천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유족들은 폭로했다.

추방당할까 신고 못해

광주 하남산단에서 만난 불법 체류자 M(여·38·가자흐스탄)씨는 한 달에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공장에서 근무했지만, 실제 지급된 돈은 80만원이었다. "약속한 만큼 달라"고 업무에게 요구하면, "당장 나가라"는 답변 되돌아 왔다.

임금을 떼인 외국인들은 그러나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697명이 임금을 체불당했지만, 이중 외국인은 15명에 불과하다. 불법 체류자가 신고를 못 하고 있는 탓이다.

◇범죄 연루도=천대당하고 소외받는 외국인이 범죄와 일탈로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전남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절도와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입건된 외국인은 지난 2004년 140명(구속 44·불구속 96)에서 2005년 202명(구속 60·불구속 142)으로 45% 증가했다.

목포시 하당 등 신도심에서는 일부 젊은 외국인 여성들이 속칭 '보도방'을 통해 유증업소에 취업, 매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인간띠 잇기

17명 살렸다

여수 박생만 소방사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당시 한 소방관이 수용자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인간띠 잇기'를 하도록해 17명을 구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화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관 중 1명인 박생만(35)소방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3층의 6개 보호실 열쇠 12개를 건네 받아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

박 소방사는 자물쇠와 체인 등 2중 잠금장치를 순서대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 있던 외국인들을 밖으로 불러냈다. 박 소방사는 이어 "허리를 잡으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를 알아챈 외국인 8명은 하나의 '인간띠'를 만들어 밖으로 빠져나왔다. 유독가스가 가득 찬 밀폐공간에서는 숨을 쉬더라도 방향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었다.

박 소방사는 다른 구조대원 2명과 함께 '인간 띠'를 통로 끝까지 인도했고, 또 다른 9명도 같은 방법으로 구조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나원침 (7054) 김장두



한우 16마리 출진 '고교생 소도독'

○전북 일대 축사를 둘러 한우 등 소를 출진 고등학교 2명과 판매를 도운 앞선책, 출진 소를 산 사냥 등 4명이 줄줄이 경찰에 입건.

○13일 전북 익산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A(16·충남)군은 학교 선배인 B(17)군과 함께 12일 새벽 1시께 익산시 여산면 정모(57)씨의 축사에서 한우 1마리 등 소 3마리(시가 600만원)를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소 16마리(시가 6천600만원)를 훔쳤다는 것.

○이들은 출진 소를 앞선책 김모(52)씨를 통해 경기도 안양에 있는 소 경매시장에 팔다가 수사에 나선 경찰에 달미가 잡혔고, 김씨와 출진 소를 산 이모(51)씨는 불구속 입건.

○이들은 경찰에서 "출진 소를 판 돈으로 옷을 사입는 등 모두 용돈이나 유희비로 썼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A군의 가족 등 친지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연합뉴스

방송사 여직원 얼굴 상처 법원 "노동력 상실" 판결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김중기 판사는 "치과 진료 중 의사의 실수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며 모 방송사 직원 H(여)씨가 치과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처가 육체적 활동 기능의 장애는 아니지만 영구히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원고가 방송업에 종사하는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외모의 추상이 남은 경우'(노동력 15% 상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강종만 영광군수 소환 검찰, 수뢰 혐의 조사

광주지검 특수부(김종호 부장검사)는 13일 영광군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과정에서 역대의 금품이 오간 혐의를 잡고, 강종만 영광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께 영광군 영광읍 자신의 집에서 이미 구속된 친척 지씨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수표로 1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검찰에서 "부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돌려주려 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군수의 부인도 이날 함께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보기 안올리게 조작됐다

방화 용의자 신분 확인, 본명 '김광석'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현장에서 라이터가 발견되고, 방화로 추정된다는 생존 외국인의 추가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참사의 원인은 방화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참사 수사중인 여수경찰은 13일 현장에서 라이터 2개를 수거하고, 방화추정 진술을 확보 한편, 방화 용의자인 김명식(39)씨의 본명이 지난 2000년 9~10월 사이 한국으로 밀입국한 김광석(39·金光錫·Jin Guangxi)인 것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반입이 금지된 라이터가 어떻게 보호실에 반입됐는지, 화재 경

보기 왜 작동되지 않았는지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라이터 어떻게 반입됐나=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식 결과 방화 용의자인 김씨가 수용된 304호에서 라이터 2개가 발견됐다. 1개는 약간 그을린 채 거실 내 사물함에서, 다른 1개는 화장실 쪽 모로 밑에서 훼손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반입 금지 물품인 라이터가 보호실에 들어오게 된 이유와 경로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라이터, 범행에 사용됐을까? = 그러나 발견된 라이터가 이번 화재에 사용됐는지라는 추정을 하기에는

의문점이 아직 많다. 범행에 사용하고 바로 버렸다면 라이터 몸통은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화재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지문과 유전자 감식 정밀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화재경보 왜 안 울렸나=여수소방서가 진화 후 경보기를 확인한 결과, 화재 경보시스템의 기능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1층 화재 수신반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하는 '주경종'과 '지구경종' 버튼이 눌러진 상태였다.

왜 두 버튼이 눌러진 상태로 있었는지, 누가 고의로 누른 것은 아닌지 여부도 풀어야 할 의혹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총체적 인권유린"

대책위 기자회견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총체적 인권 유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추방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수용되는 시설이다"며 "보호소가 사실상 감옥과 같이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주거지 무단 침입을 통한 단속 ▲단속 시 신분증 미제시 통역 없는 조사 ▲제한된 운동시간 ▲인권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방 등 보호소 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아침 저녁 하루 두알 우리 가족의 힘- 베콤씨

베콤씨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아스타잔틴은 수용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10% 할인! 02-360-9228 www.vitagor.kr